美來路 홍성	보 도 자 료	국민이 안심하고 소비하는 생산유통체계 구축 홍성군 축산과	축산과
			축산정책팀
			유제열
	사진자료 있음		041)630-1727

홍성군, 축산분야 ICT 활용으로 고효율 축산시대 연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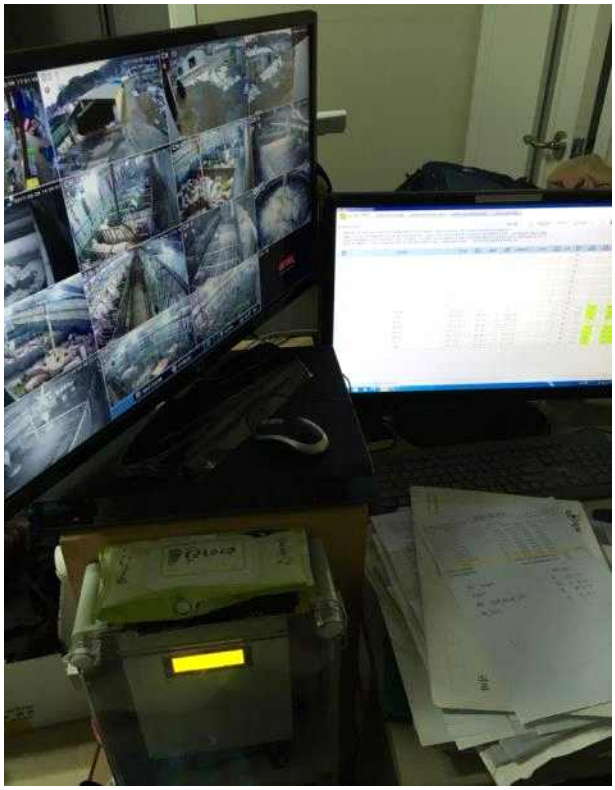
- 4차 산업혁명시대 축산업도 정보통신기술로 경쟁력 강화 -

○ 홍성군은 FTA 등 축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한 경쟁력 있는 축산업 육성을 위해 2019년 축산분야 ICT(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)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.

○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근거법령은 "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"으로 국가보조금이 없어진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과 달리 ICT사업은 여전히 30%를 국고로 지원받을 수 있다.

○ 축산분야의 정보통신기술(ICT)은 융복합 시설 장비 및 정보시스템을 활용해 개체정보, 건강상태, 축사 환경정보 등을 분석하고, 사료급여량과 노동력을 줄이면서 효과적인 사양관리와 질병예방(조기발견) 등이 가능하다.

○ 관련 시설장비는 축사 내·외부 환경(온·습도, 정전, 악취, 화재 등) 모니터링 장비를 비롯해 사료 자동급이기, 선별기, 자동포유기 등 자동·원격 제어 장비와 축사 모티터링, 경영관리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 등 시설 장비를 설치한다.

○ 지원조건은 국비 30%, 융자50%, 자담20% 비율이며, 2% 금리에 3년거치 7년 상황 조건으로 지원되며, 군은 2019년 4농가 대상자를 확정을 하고 8억 2천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며, 현재 추가 신청을 받는 중이다.

○ 신인환 축산과장은 "성장정보와 개체별 건강상태, 축사 환경정보 등 빅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농장 경영 시 큰 도움이 될 것"이라며, "앞으로 최적의 사육환경 조성으로 생산성을 높여 축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것"이라고 말했다.